

# 호랑이 발목 잡는 '날씨' 그리고 '부상'



박준표



필승조 박준표, 훈련중 손가락 부상에 엔트리 말소  
나지완-박찬호, 수비중 부딪혀 '십년감수'  
오락가락 날씨·잦은 부상에 선수들 컨디션 유지 '난제'

비와 더위 그리고 부상이 '호랑이 군단'의 적이 됐다. KIA 타이거즈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홈팬들 앞에서 첫 경기를 펼친 지난 4일, 그라운드 안팎에서 악재가 발생했다.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경기에서부터 LG 김현수에게 만루포 포함 멀티홈런을 내주면서 5-15 대패를 기록했고, 부상도 잇달아 찾아왔다. 이날 경기 전 KIA의 필승조 박준표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보강운동을 하던 박준표가 운동기구를 놓쳤다가 다시 잡는 과정에서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늘었다. 가장 확실한 불펜 선수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에서 경기 도중 다시 한번 가슴 절렁한 순간이 있었다. 1-1로 맞선 2회초 1루 수비 상황에서 LG 라모스의 타구가 외야로 향했다. 좌익수 나지완이 공을 쫓아 내려왔고, 유격수 박찬호는 반대로 빠르게 외야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충돌했다. 박찬호가 3루로 공을 던져 김민성을 잡아냈지만

문제는 다음이었다. 충돌과정에서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부딪힌 나지완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윌리엄스 감독과 위더마이어 수석코치가 외야로 나가 나지완과 박찬호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한동안 경기가 중단됐다. 나지완은 2회 수비까지 소화한 뒤 선수 보호차원에서 교체됐다. 다행히 나지완은 우려를 털어내고 5일 스타팅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신 박찬호가 하루 쉬어간다. 윌리엄스 감독은 5일 경기에 앞서 "경기가 끝난 뒤 박찬호와 긴 대화를 나눴다. 시즌 보내다보면 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제 충돌도 있었고 휴식을 주기로 했다. 타석에서 급한 모습이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며 "김규성이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다"고 언급했다. 타석에서의 조금한 수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박준표의 빈 자리에서는 정해영의 역할이 기대된다.

윌리엄스 감독은 불펜 운영에 대해 "경기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진 것이다. 정해영을 필승조로 투입할 수 있다. 박준표가 없는 동안 6-8회에 기용할 수 있다"며 "제구가 좋고 공격적인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해영은 매 경기 경험을 통해서 불펜에서의 비중을 넓히고 있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투구를 했던 정해영은 최근에는 실전에서 포크볼을 구사하면서 수싸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해영은 "포크볼을 던지면서 좌타 상대하는게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다"며 "슬라이더 같은 경우 던질 때 (공을) 못 눌러서 던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공이 밋밋하게 가는데 그 부분 신경쓰면서 상체를 잡아놓고 가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보다) 스피드가 많이 나와서 좋다"며 "컨트롤은 자신 있다. 신인이니까 못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자신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는 비로 들쭉날쭉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상도 이어지고 있다. 김선빈이 두 차례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가 돌아왔고, 류지혁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황대인도 영구리 통증으로 재활 중이다. 집중력을 가지고 부상과도 싸워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T 특특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겠다 = 5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배우고 있다. (2살 형이니까) 와인박스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겠다"며 "한국의 문화, 인사법을 배웠다. 알려주셔서 재미있었고 감사하다"고 웃었다. 윌리엄스 감독이 찾겠다고 언급한 이는 '와인투어'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LG 류중일 감독. 그는 지난 5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윌리엄스 감독에게 KBO리그 감독들이 3연전 첫날 답소의 시간을 가지고 자주 소통한다는 등 KBO리그 문화를 알렷다. 윌리엄스 감독은 류 감독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서 KBO리그 '초보 감독'으로서의 신고식을 고만하게 됐고, 와인 선물을 생각하게 됐다. 마침내 류 감독을 다시 만나게 된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상대 감독실을 찾아 와인을 전달했다. 류 감독은 건강을 챙기라며 홍삼 엑기스를 답례품으로 건넸다. ▲라이트급이 헤비급을 이긴 날이다 =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가슴 절렁한 순간이었다. 지난 4일 LG와의 경기에서 좌익수 나지완과 유격수 박찬호가 공을 잡으려다가 충돌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큰 충격을 받은 나지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KIA 벤치가 분주해졌다. 위더마이어 수석코치는 물론 윌리엄스 감독까지 외야로 걸음을 했다. 두 명의 통역과 트레이너 두 명까지 6명이 외야로 향해 두 선수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둘 다 큰 부상은 아니었다. 덕분에 윌리엄스 감독은 5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전날 상황을 말하면서 "라이트급이 헤비급을 이긴 날이다"는 농담을 할 수 있었다. 충돌 후 박찬호가 아닌 나지완이 넘어진 것을 두고 나

## 류중일 만난 맷 감독 "감사 인사는 직접"



은 윌리엄스 감독의 한 마디였다. ▲아직 전화가 안 와서 = LG 김현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나가 됐다. 김현수는 지난 4일 0-1로 뒤진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담장을 넘겼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홈런이자 생각치 못한 선물을 안겨 준 홈런이었다. 김현수의 방망이를 떠난 공은 그대로 챔피언스필드 외야에 마련된 홈런존의 전시 차량에 맞았다. KIA는 원정 선수에게도 홈런존을 개방해 차나 구

조물을 맞힐 경우 차량을 선물하고 있다. 덕분에 김현수는 홈런으로 타점에 스폰네토까지 동시에 얻었다. 이 뿐만 아니었다. 김현수는 2-3으로 뒤진 5회 2사 만루에서 다시 한번 담장을 넘겨 역전 만루포를 작성했다. 김현수는 "이런 날도 있는 것이다"며 싱글방을 기본 좋은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5일 부상을 어떻게 할 생각이나는 질문에는 "아직 전화가 안 왔다. 아직 모르겠다"며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머리 깎은 류현진, 오늘 승전보 올릴까

애틀랜타전 선발 출전... "제구력 끌어올려 능력 보여주고 싶어"

올 시즌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자르고 싶었다. 류현진은 5일 현지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 경기를 치르고 싶어서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4.2이닝 3실점, 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4.1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류현진의 공은 예전과 달랐다. 특히 워싱턴전에서선 직구 구속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졌다. 주변에선 류현진의 직구 구속 문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작 본인은 제구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두 경기에서 완벽한 제구력을 펼치지 못했다. 한쪽으로 공이 치우치는 모습도 나왔다"



며 "빨리 제구력을 끌어올려 내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6일 오전 8시 10분에 열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하는데,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남다른 자세를 보였다. 기술적인 분석도 빠놓지 않았다. 류현진은 "(내가 공을 던졌던) 영상을 보며 분석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우즈, 메이저 통산 16승 도전

PGA 챔피언십 오늘 개막... 1·2R 토머스·매길로이와 한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함께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1, 2라운드를 치른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이번 대회 1, 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우즈는 세계 랭킹 1위 토머스, 3위 매킬로이와 함께 한 조가 됐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 주요 조 편성 가운데서도 단연 팬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룹인 셈이다. 메이저 대회 통산 16승에 도전하는 우즈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답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즈는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세 차례만 출전했고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공동 9위 이후로는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68위,

7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40위 등으로 성적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대회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날씨는 10~20도 사이로 선선할 것으로 예보돼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 우즈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대회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18홀, 9홀 연습 라운드를 치른 우즈는 "대회 출전이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 많은 연습을 해서 느낌은 좋다. 몇 가지 변화를 준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날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면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큰 대회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우즈는 9월 US오픈과 11월 마스터스에도 출전 계획을 밝히며 "이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메이저 선수 추가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우즈가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2007년 이후 13년 만에 패권 탈환이 되며 통산 5회 우승으로 잭 니클라우스, 월터 헤이건과 함께 이 대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먼저 무관중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해 우즈는 "아마 우리 세대에 메이저 대회를 무관중으로 치러본 선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 같은 입장이지만 관중이 없는 가운데 우승 기회를 잡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브룩스 켈카(미국)는 지난해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셰인 라우리(아일랜드), US오픈 우승자 게리 우들랜드(미국)와 한 조로 묶였다. 안병훈과 임성재는 같은 조에서 테일러 구치(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고 김주형은 샬 슈워츠(남아공), 아브라함 안세르(멕시코)와 같이 1, 2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